

OECD 가입의 득과 실

이 경 식
 〈한국은행 총재〉

이 자료는 이경식(李經植)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4일 현정부 출범 이후의 전직 장·차관 모임인 마포포럼 하계수련회에서 강연한 내용임.〈편집자주〉

1. OECD 개요

(1) OECD의 탄생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부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목적으로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수립하여 대규모 원조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음.
- 이를 수혜국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협력체로 48년 4월 서유럽 16개국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결성
- OEEC 출범 이후 서유럽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는 한편, 55년 유럽경제공동체(EEC), 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서유럽 지역내의 경제공동체들이 잇달아 발족됨에 따라 이들 국가그룹을 포괄하는 경제협력기구로서 OEEC를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61년 9월 18개 유럽국가와 미국 및 캐나다 등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서방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체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족하게 되었음.
- *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 이후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뉴질랜드(1973)가 OECD에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멕시코(1994), 체코(1995), 헝가리 및 폴란드(1996)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났음.

(2) 기구성격 및 주요활동

- OECD는 주요 선진국들이 거시경제 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각국의 정책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면서 상호간의 정

책협조를 피하는 다자간 협의체 성격의 기구임.

* OECD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공통적 가치관과 경제·사회체제면에서의 동질성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클럽 성격의 기구로서 대부분의 국가에 가입을 개방하고 있는 UN이나 WTO와는 구별됨.

○ 한편 OECD는 회원국 전체인구가 전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나 GNP는 전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 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GNP도 평균 2만 달러 정도로서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기구임.

○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OECD는 그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규약 및 규범 등의 마련과 시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 예를 들어 OECD는 이미 60년대에 비관세장벽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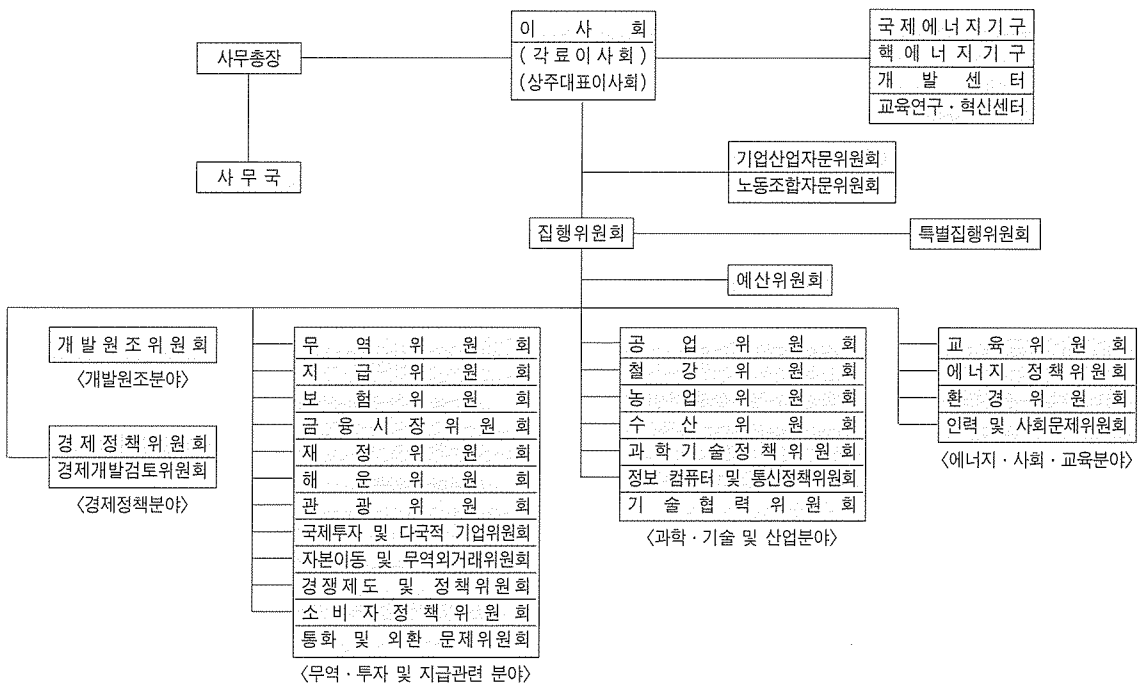
폐 및 반덤핑과세 인정, 70년대에는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서비스·금융부문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개념을 주창하며, 이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GATT 및 WTO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

○ 특히 OECD는 2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산하기구를 통하여 거시경제정책, 산업구조조정, 자유무역 확대, 서비스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개발원조, 에너지 및 첨단기술개발, 농·어업 부문 및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발전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3) OECD의 조직

○ OECD의 주요조직으로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

〈그림-1〉 OECD 조직도



집행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26개) 그리고 이들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4개의 반독립적인 부속기구와 2개의 민간자문기관이 있음.

2. OECD가입추진 배경 및 전망

(1) 가입추진 배경

○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지향형 성장전략,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 유지,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한 결과 현재 선진국 진입 문턱에 도달해 있음.

○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제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OECD에 가입* 하는 것이 바람직함.

* OECD회원국(우리나라 포함 29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비교:

- 경제력 규모(94년 GDP기준): OECD 회원국 중 9위
- 1인당 국민소득(93년 1인당 GDP기준): OECD 회원국 중 23위

- 즉, 지금까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입장에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형성된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에 편승하여 온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존 선진국과 주요 경제현안 및 정책전반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적극적이고도 개방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

○ 자본, 기술, 인력, 기업경영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소위 「borderless economy」 하에서

국경을 방패삼아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주로 의존하여 온 종래의 경제발전전략은 이미 유효성을 상실한 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현행 경제제도와 관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국제적인 규범에 접근시키는 등 경제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절실

(2) 추진경과 및 전망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70년대말 미국의 불루멘탈 재무장관이 거론한 바 있었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음.

○ 88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경제의 비약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다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새로운 비전이 제시됨에 따라 96년중 OECD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설정

○ 95년 3월 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95년 11월부터 시작된 7개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막바지 절충중임.

* 해운, 보험, 금융시장,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환경, 재정위원회

- 현재 절충중인 사항은 1인당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현금차관, 외국인직접투자 성격의 장기차관, 우호적 M&A 등과 관련한 자유화폭 확대문제와 77그룹* 탈퇴, 근로자의 권리증진 등임.

* 64년 3월 UNCTAD 제1차 총회에서 개도국 77개국이 공동 보조를 통한 총회운영주도를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구성된 비공식개도국 교섭단체로 현재 131개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음.

- 금년 9월 26일 OECD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초청여부가 최종결정될 예정인데 현재 희망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음.

3. OECD 가입의 득실

(1) 거시경제적 득실

1) 거시경제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

- OECD 가입시 금융·외환·자본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에 따라 환율, 금리, 통화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므로 통화, 환율 및 재정 등 거시정책변수의 조화적인 운용의 필요성 증대
 - 이 경우 거시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금안정, 유통구조 선진화 등 미시적·구조적 측면에서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금융 및 자본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OECD 가입 이후 좋은 거시경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야 함.
 -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 가입 후 경제동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핀란드는 69년 가입 이후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음.
 - 이는 통화량증가 압력을 재정수지 흑자로 완화하는 동시에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등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2) 경제구조의 선진화

- OECD 기준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운용상 기본철학은 자유시장경제의 능률과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임.
- 또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도 단기적인 경기대응보다는 기술개발, 교육투자, 근로조건 개선, 환경보호 등 중장기적 시야에서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구조 고도화에 두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과 경제정책의 운용전반에 걸쳐 상호협약 및 협조를 내실 있게 해 나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음.

(2) 부문별 득실

1)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부의 역할 기대

- OECD에서 논의되는 경제현안 및 정책협의의 핵심 내용을 조기 파악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을 신장시키는 한편 세계경제질서 및 규범의 정립에도 일익을 담당
- 또한 지금까지의 규제와 보호를 위주로 한 외연적성장(extensive growth) 중시형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능률과 경쟁을 기초로 하는 내연적성장(intensive growth) 중시형 경제운영 정착 기대
- OECD는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논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의체이므로 OECD 가입 이후 선진국들과의 쌍무적 차원에서의 개방압력과 경제마찰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한편 향후 대개도국 원조를 늘려 나가는 등 개도국들과 새로운 관계 정립

2)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각종 보호장치의 폐지로 자기책임원칙하의 기업경영체제 구축이 필요
- 자본자유화로 해외채권발행, 무역신용확대 등 저리의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해짐.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의 원활화로 기술개발 및 R&D투자 확대 가능
-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노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기업의 이익증대에 불리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여하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적자생존

의 원리에 입각한 경쟁우위 확보도 가능

- 개도국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노동·환경·무역분야에서 그 동안 누려왔던 특혜상실, 신규 준수 또는 의무사항 부과 등으로 일부 새로운 비용부담이 예상되나 이는 선진국 경제로의 탈바꿈 과정에서 충분히 흡수가능

3) 금융선진화의 계기 마련

- 자본자유화로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는 데다가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저리, 양질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
- 금융·외환·자본자유화는 금융산업에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에 입각한 금융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편 금융·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선진 금융기법의 습득과 금융기관 내부경영혁신(*innovation*)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음.
 - 대규모 자본과 선진 경영기법을 무기로 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격화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부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인수 등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쟁력 제고 가능
- 대규모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공급이 확대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수익·고위험 자산운용에 의한 위험이 높아지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금융부문의 시스템릭 리스크(*systemic risk*)도 증대

4. 대응방안

(1) 정부 및 중앙은행

- 거시정책 변수간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관련 이해집단 및 경제주체의 이익상충을 민주적·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하는 정책당국의 역할 제고 필요
 - 특히 대규모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용(*policy-mix*)이 중요한 과제임.
- 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투자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노동, 교육,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
- 금융시장의 자유화, 개방화, 범세계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증대와 전체 금융제도의 불안정 요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공시제도 강화 및 조기경보 체제 등 건전성 감독기능 제고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주력

(2) 기업

-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윤리로 무장하여 기술개발, 경영혁신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
- 철두철미한 경제원리와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경제활동 관행을 정립
 - 인플레이 이익, 부동산 투기이익 등 불건전한 렌트추구활동(*rent-seeking activity*) 지양
 - 환율 평가절하, 인위적인 저금리 유지, 각종 차별적 보조금 등 과거의 보호장치에 안주하는 낡은 경영행태에서 탈피

(3) 금융기관

- 고객수요를 충족시키는 첨단금융상품 도입 및 개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분석기법 고도화 등으로 자산운용의 부실화 방지에 주력
-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금융 중개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 조직 및 인력운용 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배가하고 선진 금융기법의 습득,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경주

- 특히 선진국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파생 금융상품 등의 활용능력을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
- 국민저축 증대를 위한 대고객 홍보활동 강화

(4) 가계

- 투기심리 불식 및 과소비행태 지양 등 건전한 가계생활 영위 ☹ <한은정보>

석유용어해설

개질 (Reforming)

저옥탄가의 직류휘발유를 처리하여 고옥탄의 휘발유를 얻는 방법.

파라핀의 탈수소, 環化에 의한 방향족화가 주요한 화학 반응이다. 장치에는 열개질과 접촉개질이 있지만 현재는 접촉개질에 2원기촉매를 사용한다. 또한 스티리포밍은 탄화수소와 수증기에서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질촉매 (Reforming Catalyst)

개질촉매라고 할 때 접촉개

질촉매는 나프타류를 環化, 異性化, 芳香族化하는 것으로 휘발유기재를 얻을 수 있는 Pt계의 촉매를 가리키지만 수증기개질촉매는 나프타류를 스티프 반응시켜 H₂ 및 CO, CH₄를 제조하는 Ni

系촉매를 가리킨다. 단, 단순히 개질이라고 할 때에는 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개질휘발유 (Reformate, Reformed Gasoline)

저옥탄가의 직류휘발유를 열개질 또는 접촉개질로 처리하여 얻는 휘발유를 말한다. 옥탄가는 95~100으로 높고 자동차 휘발유로 사용된다. 또한 방향족유분이 풍부하여 BTX등 석유화학원료로서도 사용된다.